

누가 시의 소통에 관여하는가

정전(正傳, canon)

해당 장르의 표준적인 목록으로 가치를 부여받아서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텍스트, 해석 혹은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받은 텍스트, 또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텍스트

三千里



X
당신이 내로 밝히고 싶고 하고
드러나오면 해, 그러니 이제 내 방으로
이제 한 허트된 당신이 웃어, 자네 가지지가
아름답게 하.

그모든 마지막을, 오글다섯시에 부르고는
나는 진해하, 맑은 기운 할 수 있

한편 당신과 시가 바뀔 것 같

北京出版註用版



1. 十年갈 名作 2. 百年갈 傑作 (삼천리 제6권 제5호, 1934.5)

백철(白鐵)

현재의 조선(朝鮮)문학의 발전과 작품의 가치에 대하여 나는 이러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조선(朝鮮) 우수한 소설가와 시인 예(例)를 들면 소설에 이광수(李光洙) 염상섭(廉想涉) 김동인(金東仁) 현진건(玄鎭健) 이기영씨(李箕永氏) 등 시에 **주요한(朱耀翰)** **김동환(金東煥)** **김 억(金 億)** **정지용(鄭芝鎔)** **임화씨(林和氏)** 등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참된 문학유산으로 100년 이후까지 보존될 걸작(傑作)은 불행히 한 번도 생산된 것이 업지 아는가 합니다. 이것이 당행히 나의 과독(寡讀)한 소이(所以)라면 조켓습니다.

1. 十年갈 名作 2. 百年갈 傑作 (삼천리 제6권 제5호, 1934.5)

이갑기(李甲基)

一. 이광수(李光洙) 「무정(無情)」

- 一. 김동환(金東煥) 「국경(國境)의 밤」
- 一. 최서해(崔曙海) 「탈출기(脫出記)」
- 一. 조명희(趙明熙) 「낙동강(洛東江)」
- 一. 김동인(金東仁) 「감자」

一. 염상섭(廉想涉) 「표본실(標本室)의 청(靑)개구리」

一. 이기영(李箕永) 「서화(鼠火)」

- 一. 임화(林和) 「우리 옵바와 화로(火爐)」
- 一. 이상화(李相和) 「악긴 들에 봄은 오누나」

〈표 2〉 『조선명작선집』의 수록 시인과 작품 목록

시 인	수록 작품	시 인	수록 작품
주요한	봄달잡이, 샘물이 혼자서	김명순	탄식
정인보	가신 님	조명희	봄잔디밭
김 역	고향의 노래: 보실비, 가을	이상화	나의 침실로
김소월	금잔디, 진달래꽃	변영로	논개, 생시에 못되을 님을
이은상	가뭇하, 성불사의 밤	임 화	우리 읍바와 화로
양주동	해곡 3장, 별후	김기림	들은 우리를 부르오
박팔양	밤차	모윤숙	안해의 소원, 반디불, 사공
정지용	갈매기	이병기	석굴암
김기진	회관 압해서	한용운	당신의 편지, 님
김형원	고구려 성지過次	과 인	송화강 뱃노래, 청노새, 꿈, 로맨스, 산넘어 남촌에는
박종화	정밀, 푸른 문으로		

《조선명작선집》 (삼천리사, 1936)

처음 말씀

국초, 춘원의 손으로 첫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우리 신문에는 어느새 이십여년이 지난 창설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술적으로 천분 가진 여러 작가가 나타나 혹은 소설과 혹은 희곡, 평론 등으로, 빛나고도 생명이 있는 작품을 만히 내놓아 이제에는 예술적 유산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백대의 후손에 물려주기에도 늦고도 빠르다고도 다른 나라 문단에 비하여 쉼 없이 업다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로 일이 십년이란 짝은 역사 위에 이르러 화려한 예술의 꽃이 피어선 문단이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느 민족의 역사 위에 잊을 때가 더구나 이땅 문인제씨 모다 그 가난과 고독의 숙명적 처지에 얽매어 잊으면서 이만한 예술의 꽃을 피어놓았나 함은 오직 경이요 찬란거리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이십년간의 노력의 결과를 거두어 한꺼번에 전망, 완상하여 보려함이 다음 역사를 만드는 데에 한개의 定石을 놓는 努力이 되겠고 또 한편 우리 스스로도 제 일들을 드러다 볼 機會가 될 것입니다. 다만 처음 예정에는 작가가 수약 삼십여명, 시인 약 사십여분을 모으려 하였으나 일자와 인쇄관계가 있어서 다음 회로 밀운이가 만났으며 또 이번에는 收載한 여러作家 諸氏에 對하여도 略歷과 作品年譜와 그 眞實을 실으려 하였으나 그도 뜻대로 되지 못하였기 再版時에 하기로 하고 모다 밀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각작가의 대표적 작품을 골라느라 하였으나 그 취사 선택에 잘못된 점이 만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너보아 주옵소서.

丙子三月一日

서울 鍾路 三千里社 四層樓上에서

編者 識

《현대서정시선》 (이하윤 편, 박문서관, 1939)

진실(眞實)로 경이(驚異)에 값할 만한 **천재적 민요시인 소월(天才的民謠詩人素月)**은 우리가 영원(永遠)히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보옥(寶玉)의 하나로 그의 시(詩)에는 기교(技巧) 따위의 자취가 조금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가 구사(驅使)한 언어(言語)에 촌호(寸毫)의 빈틈을 발견(發見)할 수 없도록 음악적(音樂的)이다.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이후(大正十二年以後)에 대두(擡頭)한 소위 신경향파(所謂新傾向派)로 말미암아 일시(一時)는 서정시(抒情詩)의 영역(領域)까지 침해(侵害)받기 쉬운 정도(程度)에 이르러 약간 혼란(若干混亂)한 상태(狀態)에 기우러진 때도 있었으나 시(詩)란 어디에 있어서나 결(決)코 그 본질(本質)을 잃지는 않는다. (중략) **서정시인(抒情詩人)의 본질(本質)**을 가장 풍부(豐富)하게 감추었던 임화(林和)는 드디어 다시 옛길로 돌아오고 있으며 박세영(朴世永)도 「산(山)제비」에서 다시 시신(詩神)을 찾는 노력(努力)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현대서정시선》 (이하윤 편, 박문서관, 1939)

시(詩)의연구(研究), 시인(詩人)의평전(評傳)하나 나오지않는것이 우리시단(詩壇)이오, 신시사상(新詩史上)에 나타난 이삼(二三)의서사시(敘事詩)도 이미 결(決)코 좋은것이 될수는없었다. 그렇다고 김기림(金起林)의「기상도(氣象圖)」적시(的詩)가 또는 황석우(黃錫禹)의「자연송(自然頌)」소곡(小曲)이 우리 시가사(詩歌史)와 얼마나한 정도(定度)의 깊은관계(關係)를 맺게될것인가도 의문(疑問)이라면 약간의문(若干疑問)이 아닐수없다. 양(洋)의동서(東西)를물론(勿論)하고 **서정적요소(抒情的要素)가 결여(缺如)된 운문(韻文)은 시가(詩歌)가 되지못하는것이니** 그럼으로 「앨런. 포-」의설(說)을 빌려올것도없이 「참으로 시(詩)라고 할수있는것은 서정시이외(抒情詩以外)에는 없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 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안었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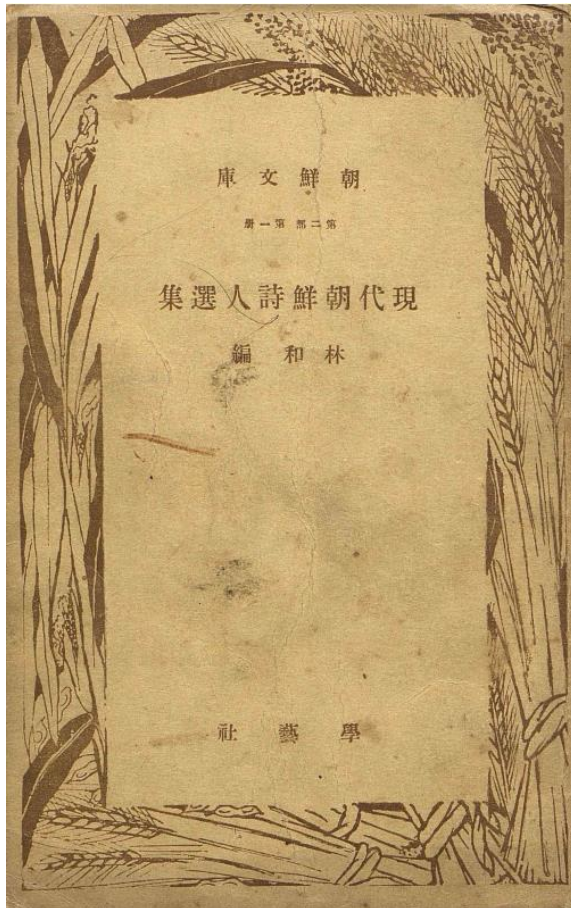
이 앨썬 해도(海圖)에
손을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휘둥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뿔인양
오무라들고...피고...

- 정지용, <바다>

《현대조선시인선집》 (임화 편, 학예사,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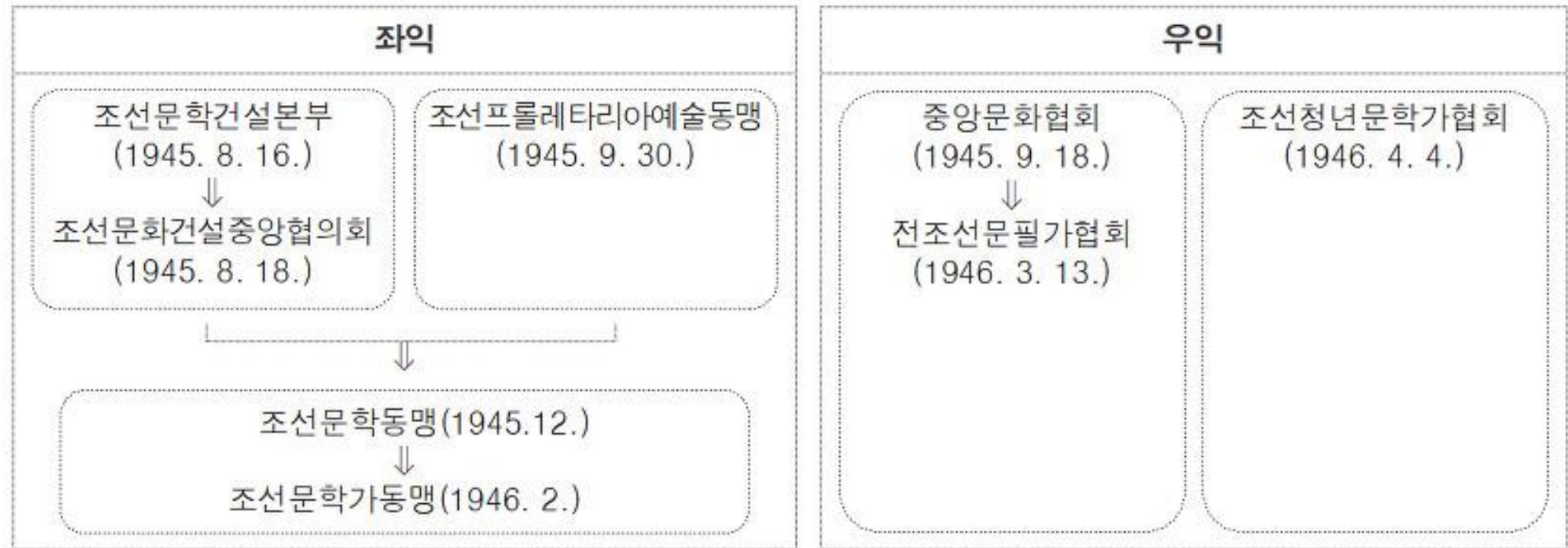


- 72명의 시인의 대표작 한 편씩 수록
- 연배의 노소, 이념의 좌우, 리얼리즘적 경향과 모더니즘적 경향까지 모두 아우름
- 1910-20년대 신시를 역사적 관점에서
1930년대 현대시를 현대적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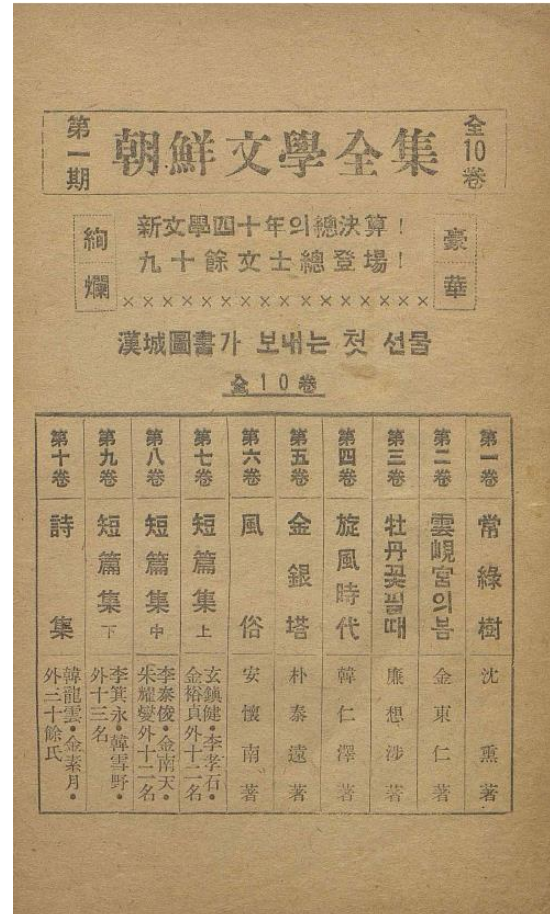
시 인	수록 작품	시 인	수록 작품	시 인	수록 작품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박아지	가을 밤	김용제	혼수
이광수	붓 한 자루	손풍산	위문	입사명	어두운 방의 시편들
주요한	비소리	권 환	원망	반상규	고향의 하늘은 밝어 오리다
김 역	신미도 삼각산	김기림	추억	백 석	모닥불
남궁벽	풀	신석정	푸른 침실	노천명	도라오는 길
조명희	봄 잔디밭우에	김동명	밤	정희준	우로
김소월	면후일	김병호	여수	임학수	인정각
이은상	물결의 유언	양우정	계절의 선율	김조규	Nostalgia
박종화	흑방비곡	이정구	기차	마 명 산	
이상화	나의 침실로	김광균	설야	민병균	계절의 감상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조벽암	나는 돌이 아니여	이 상	오감도
박영희	월광으로 잔 병실	이 찬	The Room Elise	오장환	적야
김형원	벌거숭이의 노래	양운한	강변	윤태웅	나무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이규원	바다의 장례식	장기제	북방땅 십리벌에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이 흙	고향	이시우	방
김기진	백수의 탄식	황순원	밤차	서정주	화사
박팔양	윤전기와 4층집	안용만	강동의 봄	박재륜	편지
양주동	해곡 3장	김영랑	모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박세영	산재비	김태오	난초	김광섭	어느 해의 자화상
정지용	해협 오전 2시	이용수	바다 풍경	김대봉	무심
유완희	내스가에 앉어	윤근강	만가	김용호	고개
임 화	해협의 로맨티시즘	모운숙	밀밭에 선 여자	이용악	낡은 집
김해강	산상고창	김상용	포구	유치환	산
박용철	떠나가는 배	이병각	아드와의 원수를!	김종한	낡은 우물이 잇는 풍경

- 새로운 시의 언어, 경향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의 가능성
적극적으로 수용
- 한국 근대시사에 **균형잡힌 시각** 제공
- 편찬자의 **미학적 수준, 작품 평가 능력**

해방기 -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국가' 개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충돌하던 시기



《시집》 (임학수 편,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해방 전 등단했고,
해방 후에도 창작활동을
계속하는 시인으로 선별해
사화집을 구성

창작과비평사의
《한국현대대표시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기획

편저자 민영, 최원식, 최두석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10년대를 기준으로 나눔. 편집된 장의 첫머리는 해당 시대의 시사적 특징을 서술해 둠으로써 해당 시가 놓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어보도록 유도.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시의 세계를 감당했던 시인들을 높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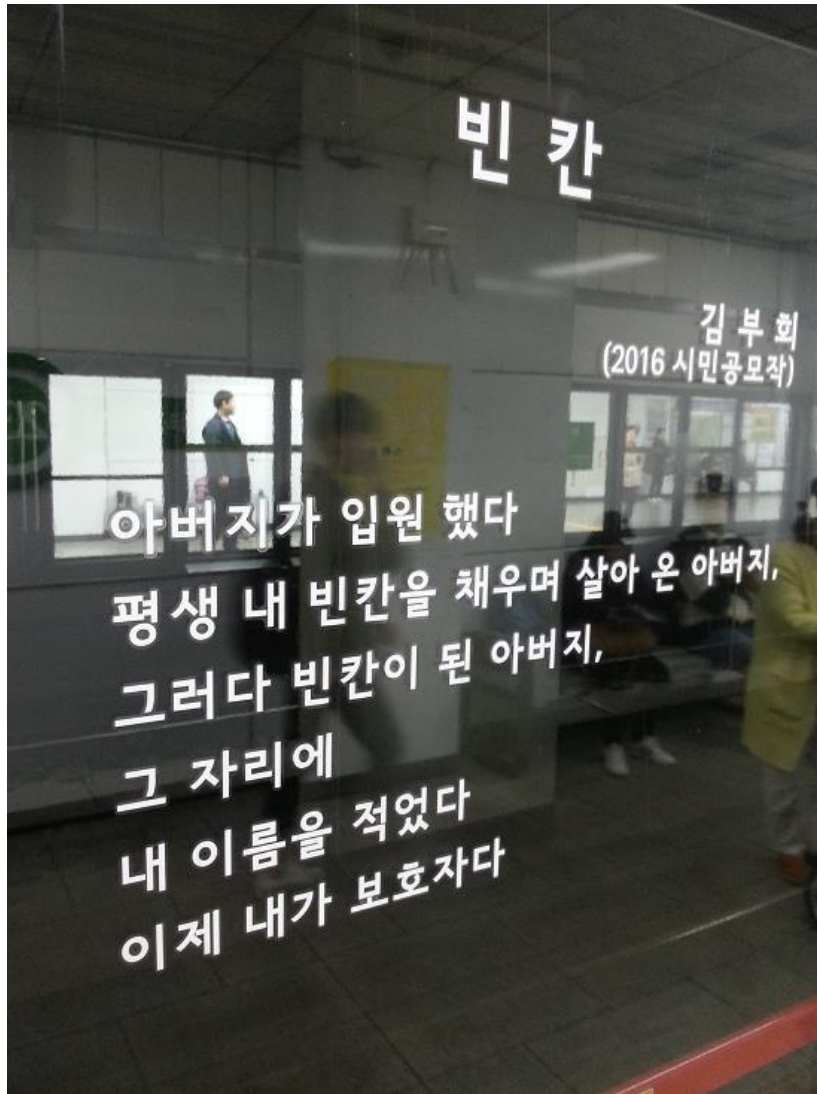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의
《한국문학선집 1900~2000 시》

2007년 발간

최동호, 신범순, 정과리, 이광호 역음

근대시의 형식적 도입과 정착과정(1900~1929), 미의식의 자각과 정책으로 인한 좌절(1930~1944), 해방과 근대성의 모색(1945~1959), 학생혁명과 군사정권이 라는 두 개의 현대성(1960~1979), 사회비판정신의 침몰과 현재(1980년대 이후)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

선집의 기본 단위를 '시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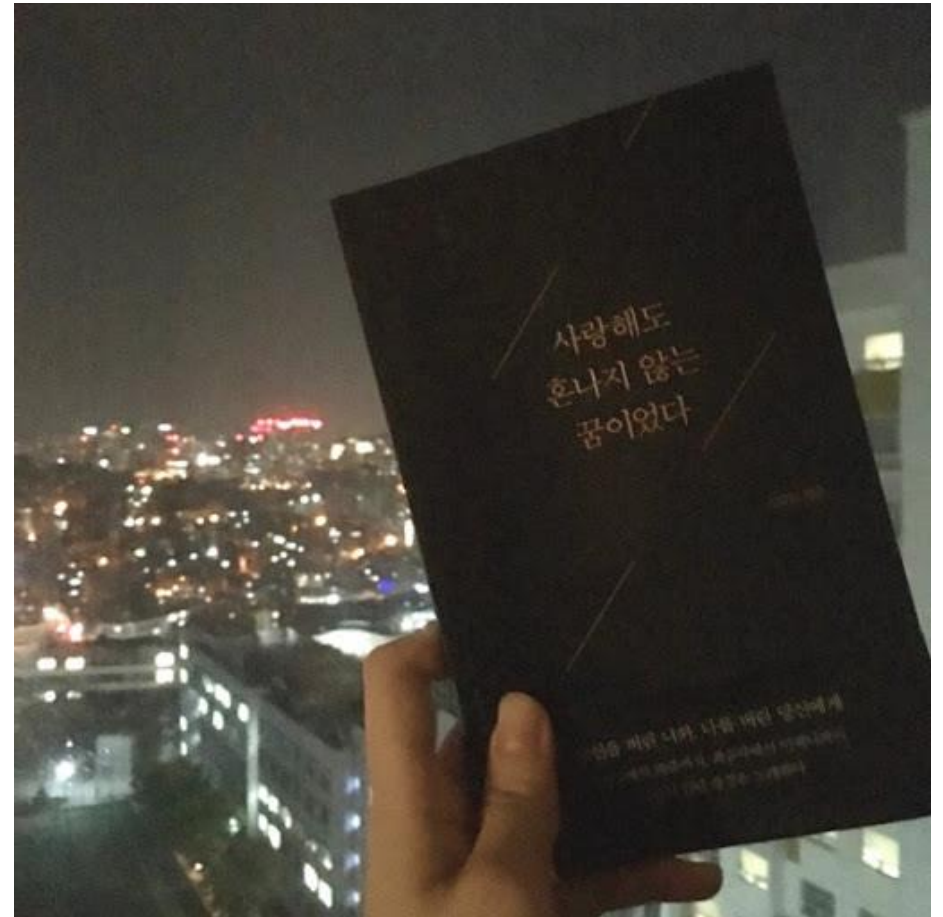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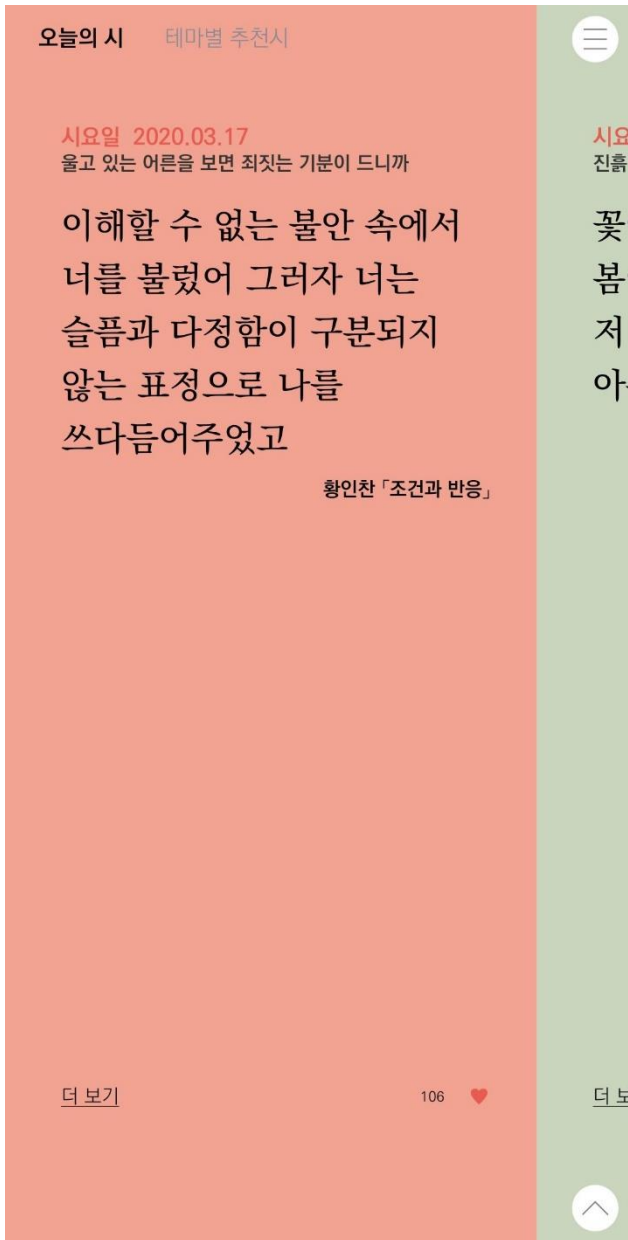
I. SEOUL.U 서울특별시

20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창작 詩 공모전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 지하철에서 나는 행복을 만나다!

공모 기간	2019년 6월 17일(금) 09:00 ~ 7월 12일(금) 18:00 / 3주간
응모 분야	한글시 1인당 1편
공모 주제	경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정보 속에서 소비자 권리, 안전을 줄 수 있는 내용 ▶ 서울을 주제로 한 내용
공모 형식	A4 용지 1매(15줄 이하) / 1인당 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선별을 거쳐선정된 작품 100여 편과 2차 선정된 작품을 국문·한글로 ▶ 선정된 시집에 실릴 시 100여 편을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여 편을 실는다
참수 방법	내 신변에 서울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민참여 > 공모전 참여 후 2019년 6월 17일 09:00 ~ 7월 12일 18:00 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참여하여 접수 * 후원금 수 및 안전장치는 불가하다니 정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	선정 100여 편 * 선정된 100여 편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여 편을 실는다
문의처	공모전事務局 02-12-0000-0000

오늘날의 시집을 읽는 사람들을 통틀어 헤아린다 해도 거의 '시인=독자'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INSTAGRAM'S YEAR IN REVIEW

가장 많이 사용된 스토리 인스타그램 AR 필터

Top Used AR Filter

- superzoom_romance 수퍼줌_하트
- superzoom_angry 수퍼줌_화재
- superzoom_sad 수퍼줌_실망
- Glitter 글리터
- Heart Bloom 하트 불꽃

가장 많이 사용된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

Top Used Sticker

- sticker_id 친구태그 스티커
- location_sticker_vibrant 위치 스티커
- question_reshare_sticker 질문하기 스티커
- time_sticker_digital 시간 스티커
- hashtag_sticker_id #해시태그 스티커



#공스타그램 #스터디플래너
#노트필기 #공스타



#글귀스타그램
#영화명대사
#위로글귀
#감성글귀
#공감글귀
#힐링글귀



2019년 팔로워가 가장 많은
해시태그



#데일리룩 #아메카지룩
#스트리트패션 #미니멀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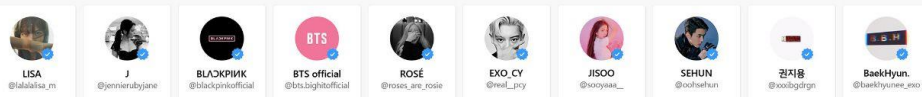


#방탄소년단
#아이유
#아이린
#키드밀리



#슬라임
#고양이
#여행에미치다
#방꾸미기

팔로워가 가장 많은 한국 계정



시가 소멸해간다고 하는 것이 비장미를 띠는 이유는 시에 공공성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서, 혹은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시만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매체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매체들 중 하나다.

시는 어떤 일이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행해지게 하는 데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시는 **놀이의 방식**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시는 **노동과 강제와 의무에 덜 구속될 삶의 형태를 입증**한다.



集詩溶芝鄭

수박냄새 품어 오는
첫너름의 저녁때.....

먼 해안 쪽
길옆나무에 느러 손
전등. 전등.

헤엄쳐 나온듯이 깜박어리고 빛
나노나.

침울하게 울려 오는
축항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이국정조로 퍼덕이는
세관의 기스발. 기스발.

세멘트 깐 인도측으로 사뭇 사뭇

옴기는
하이한 양장의 점경!

그는 흘러가는 실심한 풍경이여
니...

부줄없이 오랑쥬 껍질 씹는 시
름.....

아아, 애시리. 황!
그대는 상해로 가는구료.....

- 정지용, <슬픈 인상화>

개 같은 가을이

최승자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쪽 다리에 찾아온다

모든 사물이 습기를 잃고
모든 길들의 경계선이 문드러진다
레코드에 담긴 옛 가수의 목소리가 시들고
여보세요 죽선이 아니니 죽선이지 죽선아
전화선이 허공에서 수신인을 잃고
한 번 떠나간 애인들은 꿈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괴어 있는 기억의 폐수가
한없이 말 오줌 냄새를 풍기는 세월의 봉긋방에서
나는 부시시 죽었다 개어난 목소리로 묻는다
어디만큼 왔나 어디까지 가야
강물은 바다가 될 수 있을까

바닥까지 미개해져서 우리는 만난다
나의 엄마는 더럽고
너의 아빠는 뽀뽀 악수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엉터리 문장
백지 위에 얼룩을 남기며
살려고도,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과자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는 다시 만난다
머릿속은 마른 조개처럼 텅 비고
발톱은 새의 부리처럼 두껍고 단단해져서
그르릉 소리가 터져나오기 전에!

너의 얼굴은 온통.....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원이 아니야. 뭔가가 있어. 뭔가
어리석고 역겨운 것이!

나는 무척 마음에 든다
나는 무척 마음에 들어

우리는 만난다
너의 아빠는 썩고
나의 엄마는 맘마 장난감
우리가 가진 전부,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엉망의 문장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모조리 검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눈빛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무나라의 인형들처럼

우리는 다시 만진다

- 황병승, <어린이>

무화과 숲

황인찬

쌀을 씻다가
창밖을 봤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옛날 일이다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지

아침에는
아침을 먹고

밤에는 눈을 감았다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영원한 여름에 대한 상상력



캣콜링

헤이뷰티/풀순백의 빅토리아 시크릿 이매진 웨얼아유고잉허밍으로
돈츄스피크잉글리쉬/침 튀기는 안초비 프린스 두유해브타임개들이 살 비비는
센트럴 파크 따발총 칭챙총호퍼의 창문 하루 종일 키스미미트볼 뚱뚱한 금요일
고저스에이비씨 애비뉴 전깃줄에 묶인 발레리나 행아웃워드미한밤중의 컴히얼
망아지 산책 교실 인용구로 남은 스마일걸 아유얼론뒤뚱뒤뚱 섬마을의 소낙비
드링크워드미계단 위의 미로 허드슨 리버 가운데 굶주린 바케쓰 왓츠유얼폰넘버
소호 허니도살장 나이스바디플라타너스 아이러브교회 탑 사방의 호각소리
마이럽엥킨 바지를 벗었다 룩앳미여러 켈레의 히치하이커 헤이 헤이룩앳미젖은
레코드판 비티지 미녀 룩앳미걸 두유워너펙수수깡으로 지은 경찰청 헬로헬로
종이컵 속에서 짤랑짤랑 우는 치나 오솔길 지름길 아유이그노잉미낮선 몸과
학교로 가고 구석에서 조는 퍼킹비취엄마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
사이 나의 소원은 고백투유어컨트리

참고문헌

- 김신정, <'시어의 혁신'과 '현대시'의 의미>, 《상허학보》 4, 상허학회, 1998.
- 심선옥, <1920~30년대 근대시의 정전화 과정>,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 _____, <해방기 시의 정전화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이명찬, <시교육 자료로서의 사화집>,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 장이지, 《환대의 공간》, 현실문화연구, 2013,
- 김상운, <스물다섯 李箱, 최정희에게 보낸 러브레터 첫 발견>, 《동아일보》, 2014.7.23.

추천도서

정지용, 《정지용시집》, 시문학사, 1935.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중앙, 2005.

황인찬, 《구관조 씻기기》, 민음사, 2012.

이소호, 《캣콜링》, 민음사, 2018.